

2021년 12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호주 주요 지역에 격리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호주 이민성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호주 이민성 한국 페이지: [Korea | COVID-19 and the border \(homeaffairs.gov.au\)](https://www.homeaffairs.gov.au/korea)

## 입국 조건 안내

1.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2. 유효한 호주 비자 소지자

3. 백신 2차 접종 후 7일 이상 경과자

- 만 12세 미만 및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이 면제되는 여행객의 경우 본 기준 미적용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될 경우 반드시 호주 이민성 상세 페이지의 'If you cannot be vaccinated for medical reasons' 내용 참고하여 진행 [Vaccinated travellers | COVID-19 and the border \(homeaffairs.gov.au\)](https://www.homeaffairs.gov.au/vaccinated-travellers))

- 만 12세 이상 - 만 17세 미만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을 마친 성인과 동행할 경우 호주 입국 허용. 자세한 입국 기준은 주/테리토리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여행 전 해당 지역의 [홈페이지](#) 참고.

- 호주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승인한 아래 백신

- 아스트라 제네카(AstraZeneca Vaxzevria & AstraZeneca Covishield)
- 화이자(Pfizer/Biontech Comirnaty)
- 모더나(Moderna Spikevax)
- 시노백(Sinovac Coronavac)
- 바라트 바이오테크(Bharat Biotech Covaxin)
- 시노팜(Sinopharm BBIBP-CorV):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대상, 베이징에서 생산된 백신만 인정되므로 영문 백신명 필수 확인
- 얀센(Johnson & Johnson/ Janssen-Cilag COVID Vaccine): 얀센은 1회 접종자
- 위 백신 중 교차 접종자도 입국 가능

4. 백신 접종 증명서 기준

반드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호주 이민성 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Guidance on foreign vaccination certificates | Australian Passport Office \(passports.gov.au\)](https://www.passports.gov.au/guidance-foreign-vaccination-certificates)

-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 혹은 인정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

- 영문 접종 증명서

- 증명서에 아래 내역 포함

- 여권명과 동일한 영문 이름
- 생년월일 혹은 여권번호
- 백신명
- 백신 1/2회 각 접종일자

- 종이, 혹은 디지털 증명서 모두 가능

## 5. 유의사항

- 위의 모든 조건은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가 한국에서 출발할 때 적용됨.
- 한국에서 출발하지 않고, 다른 국가에서 출발 시 입국 불가.
-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가족과 호주로 여행을 희망할 경우, 위의 면제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호주 여행 제한 면제 제도인 [travel exemption](#)를 신청하여 케이스별로 승인 받은 후 입국해야 함.

## 6. 관광 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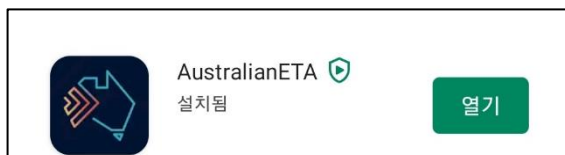
격리 면제로 호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호주 비자나 입국 허가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행객 혹은 비즈니스 출장 목적이라면, **ETA 모바일 앱**을 통해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목적의 방문일 경우, [호주 이민성 비자 페이지](#)에서 알맞은 비자를 찾아 신청해야 합니다.

### \*ETA 비자 신청방법

ETA 비자 신청 시, 기존처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닌 핸드폰에서 모바일 ETA 앱을 설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기존처럼 항공사, 여행사를 통한 ETA 접수 불가하며, 여행사를 통해 진행할 때도 여행사가 반드시 ETA app을 통해 신청해야 함)

#### ① Australian ETA 모바일 앱 다운로드

- 구글 플레이스토어 혹은 애플스토어에서 **AustralianETA** 검색



- 카메라 권한, NFC, GPS 액세스 권한 허용 (여권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용도로 쓰임)

#### ② 신청 시 유의사항

- 여권과 유효한 이메일 주소 준비
- 가족 여행의 경우, 한꺼번에 신청 불가하며 다 개별적으로 신청서 제출해야 함
- 신청자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여행사 혹은 지인의 핸드폰에서 ETA 앱 설치 후 대신 신청서 제출 가능. 다만 대리 신청의 경우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같이 현장에 있어야

함(신청자 사진을 신청서 제출 시 찍어서 제출하라고 요구됨)

③ 앱 내에서 신청 방법

- 여권 스캔
- 핸드폰 카메라로 신청자 사진 찍어서 제출
- 범죄 확인 질문 및 호주에서의 연락처 등 몇가지 질문에 응답
- 비자비용 지불
- 신청서 제출 완료 (보통은 바로 ETA 결과가 전달되며, 최대 12시간 지연될 수 있음)
- 등록된 본인 이메일로 본인 ETA 컨펌 내용 확인

7. 호주 여행 신고서 Australia Travel Declaration (ATD)

호주를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반드시 호주 여행 신고서인 [Australia Travel Declaration \(ATD\)](#) 를 출발 72시간 전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호주 여행 신고서(ATD)에는 여행객의 백신 접종 상태와 건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항공기 탑승전 반드시 호주 여행 신고서(ATD)를 제출했다고 인증해야 합니다.

- 호주 여행 신고서 작성 방법, 유의사항 안내 (국문):

[COVID-19 - Australia Travel Declaration \(homeaffairs.gov.au\)](#)

위 사항은 만 12세 이상의 여행객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며, 위반 시 위반시 벌금 \$6,660 AUD (11/22일 기준)이 부과되며, 호주에 도착 시 입국이 지체 또는 무효 될 수 있습니다.

ATD 작성 시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영문 제출)

- 백신 접종 증명서 업로드
- 백신 접종 상태와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선언에 동의
- 항공기 탑승 전 출발일 3일 내로 발급한 COVID-19 PCR 음성 결과지 제출
- 아래 두 사항에 대한 동의
  - 1) 호주에 처음 도착하는 혹은 여행 기간 중 방문할 주/테리토리의 격리 조건에 동의해야 함
  - 2) 격리가 요구되는 지역에 방문할 경우, 출발 전 미리 격리할 수 있는 숙소 등을 구비해야 함

위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8. 격리

각 주/테리토리는 격리 조건/지침 등을 각 지역별로 운영합니다.

따라서, 호주에 입국 후 주/테리토리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국내 여행 제한](#)에 대한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로부터 입학 승인을 받은 학생 비자 소지자도 마찬가지이며, 입학 허가와 별개로 반드시 학교가 있는 해당 지역의 여행 제한에 대해 여행자가 가장 업데이트된 정보를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을 양지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테리토리별 여행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9. 격리 면제 지역

백신 접종을 마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11월 22일 업데이트 된 정보로는 12월 1일부터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빅토리아(Victoria), 호주 수도 특별구(Australian Capital Territory)만 격리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 외의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의 현재 격리 기준에 대해 여행자 개인이 직접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대한민국 국적의 호주 입국 관련, 본 가이드라인은 별도의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입국 정보에 대한 원문](#) 을 참조해 주십시오.
- 본 가이드라인은 11월 22일 기준의 정보로 COVID 19 확산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행자는 입국 및 주별 이동시, 귀국 전, 각 지역의 격리 기준과 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